

의자와 긴 막대기...권력의 횡포 고발하다

이란서 추방된 작가 니키 노주미
팔레비 왕정에 끌려가 고문
미국으로 망명 후 40여년간
정치 폭력 비판하는 작품 발표

전지현 기자 입력 : 2018.12.05



Please sit down` (221×173cm)

의자와 긴 막대기. 이 두 물건은 이란 출신 미국 작가 니키 노주미(76) 그림에서 권력과 폭력의 상징이다. 그가 직접 겪은 공포와 고통을 은유적으로 풀어냈다. 1974년 미국 뉴욕 시티칼리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지 일주일도 안 돼 팔레비 왕정 비밀경찰 사바크에 끌려갔다. 과거 학생운동 전력과 미국 반전 운동 참가가 화근이었다.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8시에 부동자세로 의자에 앉아 취조를 당했다. 뉴욕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진술서를 쓰는 일을 반복했다. 그때부터 의자는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자 권력의 횡포로 기억됐다. "여기에 앉으세요(Please Sit Down)"라는 지시 역시 억압으로 다가왔다.

이 공포의 시간은 1981년 미국으로 망명한 후에도 그를 짓눌렀다. 1979년 모교인 테헤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팔레비 왕정을 비판하는 정치적 포스터들을 제작한 게 들통나 결국 추방됐다. 혼신을 다한 그림 125점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왔다.

긴 막대기도 이란에서 정치범을 고문하는 도구다. 노주미의 그림 속에 양복과 피에로옷을 섞어 입거나 가면을 쓴 남자가 들고 있다. 의자와 함께 작가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트라우마다. 그림 속에서 종종 인물들이 얽매어 있는 실타래는 벗어날 수 없는 권력의 굴레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림 속 등장 인물과 그림자는 반대다. 분할된 화면 아래 그림자는 서로 다른 인물을 비추고 있다. 작가는 인간의 이중성, 권력을 잡으면 달라지는 속성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이든 일단 권력을 쥐면 나쁜 일을 저지르고 선동을 일삼는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마찬가지라고.

40여 년간 권력의 폭력성에 붓을 대온 작가가 국내 첫 개인전을 내년 1월 13일까지 서울 삼청동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연다.

그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에 위해를 가하는 정치인의 횡포도 고발한다. 붉게 타들어가거나 뿌리를 드러내고 말라 죽어가는 식물 그림으로 시위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기후 온난화는 허구다. 환경이 위험에 처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에 그림으로 반기를 들었다.

작가는 자연이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환경 시리즈를 시작했다고 한다. 벌거벗은 채 식물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여성은 자연을 향해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다.

객들에게는 아직은 낯선 작가이지만 지난 80년간 이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예술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런던 대영박물관, 시카고 드폴 미술관, 쿠바 국립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최근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린 작가의 개인전 이후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작품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9월 개관한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인근 바라캇서울 갤러리의 현대미술전시 분관이다. 바라캇서울에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불교미술 컬렉션 전시 `찰나와 영원`을 펼치고 있다. 중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티베트를 아우르는 불교 조각과 불화로 구성된다.

[전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